

고교생들 ‘노예 경매 놀이’에 “용납할 수 없다”



▲ 흑인 학생 3명이 속옷만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있다.
사진=트위터(twitternews)

캘리포니아주 유바시의 리버 밸리 공립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선수들이 노예 경매 놀이를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은 미식축구팀 소속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같은 팀에 있는 흑인 동료들을 상대로 노예 경매 놀이를 흉내낸 것으로 추정됐다.

영상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속옷만 입은 학생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라커룸으로 보이는 방 안에는 흑인 학생 세 명이 속옷만 입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바닥으로 숙이고 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이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유바시 통합교육구의 도린 오스미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이 영상은 매우 불쾌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스미 교육감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여기에 연루된 학생들은 행동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들의 출전 정지로 소속 팀은 선수가 부족해져 남은 경기 출전이 취소됐다.

오스미 교육감은 “그들은 이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영상으로 일부 학생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낱말퍼즐 정답

1 등	2 륙	3 금	4 통	5 장
한				6 밀
7 시	8 장	9 수	10 타	11 박
	12 생	13 떼		14 대
	15 불		16 접	17 장
18 정	19 사	20 진	21 쪽	22 소
강		23 풍	24 비	25 박
	26 점	27 경	28 쪽	29 산
	30 고		31 랭	32 지

시카고, 세계 여행객이 꼽은 미국 최고 대도시

시카고가 6년 연속 ‘세계 여행객들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대도시’(Best Big City in the U.S.) 자리를 차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카고 관광청은 전날 여행전문 잡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Condé Nast Traveler)가 발표한 ‘2022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Readers Choice Awards) ‘미국 최고의 대도시’ 부문에서 시카고가 2017년 이후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24만여 독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35년 역사상 한 도시가 연속 3회 이상 최고 도시 1위에 오른 사례는 시카고 외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카고는 인상깊은 건축물들과 일류 박

물관, 특별 레스토랑, 셀 수 없이 많은 수제맥주집,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시카고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Must Dos)을 모두 경험하려면 여러 차례 반복 방문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 시카고 6년 연속 세계 여행객들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대도시 1위를 차지했다.
사진=페이스북(Choose Chicago)

한편 콘데나스트 독자들이 뽑은 ‘2022 미국 최고의 소도시’ 1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남동부의 항구도시 찰스턴, 2위는 로키산맥에 위치한 콜로라도주 애스펜, 3위는 뉴멕시코 주도 산타페, 4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5위 조지아주 사바나가 선정됐다.

인플레이션에 ‘1+1’ 할인행사 사라졌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로 미국 마트에서 익숙한 풍경인 ‘1+1’ 등 할인행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3일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나 2L짜리 탄산음료를 1달러가 채 안 되는 가격인 99센트에 판매하는 눈에 익은 할인 행사를 찾아보는 게 쉽지 않게 됐다.

리서치업체 인포메이션 리소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육류를 제외한 모든 식료품 할인 폭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떨어졌다. 2019년 3분기에 미국에서 판매된 식음료 제품의 25.7%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는데, 올 3분기엔 20.6%만이 할인행사



▲ 캘리포니아의 한 마트에서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제품에 포함됐다.

WSJ은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에 판촉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는데, 제조업체가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해 할인행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할인행사가 줄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크게 줄었다. 테네시주 킹스포트에 사는 존 프레이는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일부 육류 제품이나 유통과정에서 망가진 피자와 같은 포장 제품 외에는 할인 상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WSJ은 식품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은 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